

發刊辭

學術委員長 蘇 秉 昌



우리 正統 韓藥人들은 오랫동안에 걸쳐 民族의 健康과 生命을 지켜온 先輩들의 學問과 經驗을 繼承하여 이를 發展시키는 여러가지 努力을 傾注하고 있습니다

「大韓韓藥」은 이러한 우리들의 努力의 一還으로서 이 時代 韓藥文化의 中心에 우뚝 存在합니다 이러한 重大한 意味를 지닌채 이번에 다시 「大韓韓藥」 第5輯을 냅니다

여러가지로 不足한 제가 學術委員長의 무거운 責任을 맡아 이룩한 첫 事業이란 點에서 두렵고 황망한 생각입니다. 그간 會員여러분의 聲援과 특히 좋은 原稿를 보내 주신 投稿會員님들의 힘이 이 冊을 만드는 中樞가 되었습니다

우리는 그간에 「東醫驗方新纂」을 만들어 내는 壯舉를 이루었습니다. 우리들의 그간 潛在해 있던 力量은 이제 참으로 文化로 價値化되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「大韓韓藥」은 거듭 數를 더할 것이며 數를 더하는 만큼 그 價値도 높아질 것입니다

모쪼록 앞으로는 더 많은 會員들이 積極 參與하여 倍前의 力量이 結集되어질 것을 바랍니다

바쁘신 중에도 끊임없이 本誌出刊에 헌신해 주신 編輯委員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.

우리 韓藥人들은 韓藥文化의 主體로서 先賢들의 智慧와 經驗을 물려받아 이 時代를 살다가 가면서 健康한 마음을 활짝 열고 韓方醫藥 文化를 갈고 닦아 後學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이를 土臺로 하여 韓方醫藥을 研究發展시킬 수 있는 값지고 貴重한 資料가 될 것으로 確信합니다

새 千年의 元年에 우리 學術事業이 찬란히 꽃피울 것을 期待하는 뜻에서 會員들의 聲援을 다시한번 付託드립니다

2001 4